

증거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가 그런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둘째, 1심과 2심에서 별 문제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흘러버린 옷에 묻은 핏자국에 대한 혈흔감정이 과연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혈흔감정은 서로간의 기싸움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줄다리기가 아니었을까? 당시의 과학적 방법이 일정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옷에 묻은 혈흔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밀하게 감정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만약 그렇다면 혈흔 감정의 결과 그것이 판사의 것이라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다. 판사의 피였지만, 시간이 지나 오염된 증거물에서 나온 혈흔에 의해 판사의 피라는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결여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판사가 그런 이유를 때문에 혈흔검사를 배제 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셋째,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발사였고 주장을 한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동기가 있다. 또, 시간과 장소는 사람이 없는 밤이었다.

이 영화 한편을 가지고 석공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교수는 잘못된 사법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당시의 상황에서 현재의 CSI 같은 과학수사에 기인한 결과물을 찾고,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라고 보여 진다.

진실은 존재하지만 그 진실을 정확히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과 분명한 것들에 기초해서 진실을 찾아가야한다. 판사와 교수가 가지고 있던 진실, 그들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사실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어쩌면 신앙도 비슷하다. 우리는 당장 저 먼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는 없다.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진실의 그림자의 작은 단편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그교회는 2012년에 시작하는 작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그교회는 큰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생동감 넘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그교회에 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메일 (eventia@gmail.com) / 트위터(@jeliclelim) / 페이스북(아래)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jeliclelim>

교회 연락처 / 홈페이지

임성국목사: eventia@gmail.com // 트위터 @jeliclelim

02-996-2259, 010-8143-2259

교회 주소 / 약도

임시에배처소: 서울 강북구 수유2동 벽산아파트 12-603 (수유역에서 도보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교회

The Church

주일 아침 예배 오전 11시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성경읽기	[마태복음 17:9-20]	다같이
설교	설교자
		“겨자씨 믿음”
합심기도	다같이
찬양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일 오후 성경공부 오후 2시

성경공부	3 월부터 시작합니다	임성국목사
------	-------------	-------



글 임성국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봤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다. 간단히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한 대학 교수가 있다. 그는 수능시험에 나왔던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동료 교수들로부터 눈 밖에 나게 된다. 다음해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 교수는 법원에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잘못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재판은 재임용 탈락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내려진다. 불만을 품은 교수는 석공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는다. 밤늦은 시간, 교수는 판사와 옆치락뒤치락하던 중 화살이 발사된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교수는 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모든 재판 과정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1심과 2심은 건너뛰고 마지막 3심 과정을 주의 깊게 보여준다.

영화 속 교수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다. 첫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둘째, 피해자의 주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 셋째,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대신 뉘끼에만 급급해한다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이 있다고 했으면서 정작 증거로 제시된 것은 멀쩡한 화살이었고, 옷은 구멍이 뚫리고 피가 묻어 있지만 정작 그 피가 걸옷과 속옷 사이에 있는 와이셔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처의 크기가 구급차에 탔던 사람과 의사의 견해가 달라졌다는 것, 또 화살의 강도를 보아 사람의 배에 맞고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한다.

영화는 시종일관 사법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과 습관적인 법관들의 권위주의에 따른 억지 해석을 문제 삼는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문제제기는 재미는 있지만 정작 한편의 모험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굳이 영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공의 표적이 된 판사는 굳이 자신이 맞지 않은 화살을 맞았다고 증거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어도 석공은 발사되었으며 주변에는 증인들이 있었다. 맞지 않았더라도 치명적 무기를 소지했고,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셈이다. 그런 것을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화살을 감추고, 자신의 옷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동물의 피를 묻히면서

[설교] 겨자씨 믿음 (마17:9-20)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17:9-20)

1. 이미 온 엘리야

본문은 이전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전개된다. 산 위에서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산 위에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예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 함무령을 예수에게서 듣는다. 제자들은 의아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특히 말라기선지자에 의해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당시 유대에 널리 퍼진 사실이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을 말한다면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쉬울 것이라고 제자들은 판단한 듯 하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가는대로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 본 일을 말하려고 버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비밀에 부칠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예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온 엘리야를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했다. 예수가 말한 엘리야는 산위에서 만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즉 세례요한을 말한 것이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미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성경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 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즉,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엘리야는 문자적 의미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즉, 엘리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직을 임명받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을 의미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뛰어난 발명가를 보면서 한국의 에디슨이라고 칭찬할 때 그것이 전구의 필라멘트 실험은 수천, 수만번 반복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수는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자신은 그런 대중들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었고, 절대적으로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죽을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할지 갈팡질팡했다. 그들의 이성으로 예수의 말은 이해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믿기 원했던 승리자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예수가 말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둘 사이에서 제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가 직접 말을 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이 곧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조차 없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3.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믿음에 대해서 이 구절만큼 억지스럽고, 이상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해석되는 구절도 없었을 것이다. 종종 겨자씨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이해되며 무슨 일이든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창고처럼 이해되곤 한다. 큰 잘못이다. 믿음은 보통사람을 수퍼맨이 되게 하는 그런 마법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상식이 거부하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것이 실행되게 한다. 산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 그 섭리는 인간이 억지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에 기반 한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당시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이였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곧 죄인이 되어 모두의 눈앞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을 볼 수 있으며, 그런 부활을 보는 자의 믿음이 곧 무덤을 비게 하는 믿음이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며,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믿음이다.